

아그파는 2004년 아주라에 이어 2006년 아미고를, 그리고 지난 2008드루파에서 아주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아주라 TS를 선보였다. 아주라TS는 아주라에 비해 생산성이 50% 이상 증대되었다. 현재 수출을 주로 하고 있는 인쇄업체인 팩컴&성인미디어에 설치됐고, 포장인쇄업체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INTERVIEW

인쇄판재

김정희  
아그파코리아 부장

무현상 판재 Azura

# 친환경과 함께 준비시간 단축은 덤

일반기업들의 친환경 이미지 홍보는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인쇄업체의 환경은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모든 것이 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 하나의 업체에서 시작된 친환경인쇄가 그 여세를 몰아 인쇄업체에서도 친환경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것이 김정희 부장의 바람이다. 특히 개별업체뿐 아니라 협회차원에서도 친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친환경과 함께 청소, 준비시간도 단축

일반 현상기의 경우 온도와 농도가 판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온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현상액을 일정 온도로 맞추기 위해 현상기를 작동시키고도 시간이 걸린다. 또 현상기를 사용하다보면 농도를 꾸준히 맞춰줘야 하며, 수세물과 함께 물러나 브러시 상태도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

특히 CTP 현상기는 청소를 꼭 해야 한다. 알칼리성분에 현상액을 사용하면 반드시 슬러시가 나오는데, 이 슬러시 때문에 현상액 배선이 막히고, 배관이 막히면 온도조절이 안되는 문제점들이 있다.

김정희 부장은 “인쇄사를 운영하는 목적은 우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환경을 위해서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인쇄사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설명을 드리곤 한다”고 말한다.

아주라는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아 빠른 시간에 인쇄기를 가동할 수 있다. 처음 현상기를 가동할 때 현상액 온도가 올라가는 시간이 걸리는데 아주라는 그런 시간이 없이 스위치를 켜자마자 바로 현상이 가능하다. 또한 김정희 부장이 강조하는 것이 청소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희 부장은 “현상기의 액성이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청소를 하지 않아 현상액이 썩으면 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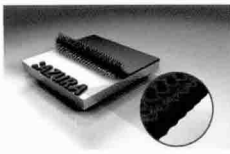
제대로 현상이 안된다. 그러면 판재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결국은 인쇄에서 문제가 생긴다. 보통 청소를 주말에 하고, 월요일 오전에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상기 청소엔 필요한 인원과 시간으로 다른 작업으로 돌릴 수 있다"고 말한다. 김정희 부장은 "지금 보통 CTP기장들은 고객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소 등 불필요한 시간 때문에 정작 CTP출력하는데 100%의 노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시간이 줄어든만큼 데이터를 작업하는데 쓸 수 있고, 작업하는데 여유가 있어야 고객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 아주라TS의 특징

김정희 부장은 아주라는 감광재 자체가 다르다고 말한다.

일반 판재의 경우 복잡한 판재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아주라는 열가소성 라텍스 입자를 녹여서 판재를 만든다. 열가소성 라텍스 입자로 구성된 감광층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830mm의 파장으로 화선부를 조사하게 되면 라텍스 입자들이 녹게 된다. 고무가 뜨거운 데에 있으면 녹는 곳과 마찬가지로 보면 된다. 열에 의해 녹은 부분이 인쇄가 되는 것이다. 즉, 노광이 되면 인쇄에 필요없는 비화선부를 제거해야 하는데, 세척고무액과 브러시를 동시에 사용해서 비화선부를 간단하게 제거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판재가 완성된다. Azura TS는 화학적인 현상 과정이 없이 고무액만으로 세척하는 단계를 거치므로 현상액을 사용하지 않아 폐수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모든 써멀용 엔진에 사용이 가능하며, 세척액 20리터 한통이면 국전판 350장을 출력할 수 있다. 인쇄조건은 기존판재와 동일하다. 인쇄통수는 10만이며, 고정쇄인쇄도 가능하다.



### 무현상판재인 아주라를 사용하고 있는 해외 CTP업체의 사례

전세계적으로는 3000대 정도 팔렸는데, 일본에서만 200개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김정희 부장은 "우리나라는 보통 한 인쇄업체에서 엔진을 1개 놓고 돌리는데, 일본의 큰 업체의 경우 엔진이 5개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큰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CTP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야간에 혼자서 작업을 한다. 그 정도로 신경을 안써도 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가텍에서 소개했던 일본 인쇄업체들과 국내 업체들의 무현상판재 이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여줬다.

니시카와 그룹(대표 니시카와 세이이치)은 전단지 인쇄를 주로 하고 있는 업체로, 오프셋인쇄기 12대를 보유하고 있다. 니시카와 세이이치 대표는 "아주라를 선택했던 것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

니시카와 대표는 "기업의 책임으로서 환경대응은 앞으로도 피할 수 없으며, 가장 먼저 친환경 솔루션을 제공한 것은 아그파였다. 처음에는 아주라 인쇄통수가 10만 정도라고 해서 운전인쇄에는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35만통을 넘는 일에서 사용한 적도 있었고, 인쇄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특히 아주라, 아미고를 사용한 결과 프린프린팅 인증도 받을 수 있었고, 크리오네 골드 플러스도 취득했다. 전단지에 크리오네 마크, 그린 프린팅 마크를 새겨 넣어 출시하고 있다. 친환경 인쇄물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에 홍보하였고, 이미 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니시카와에서 인쇄를 하면 환경에 이로운 기업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말한다.

다이코로(주)(대표 카고타 타케시)는 졸업앨범과 각종 카드, 기념지 등을 인쇄하고 있다. 카고타 대표는 "아발론, 아주라는 소형인데, 이 소형이라는 것과 검판을 할 수 있는 것이 선택의 조건이었다. 다이코로에서는 연간 15만판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쇄기에 판을 걸기전에 검판을 할 수 있어 실수를 줄일 수 있었다. 이미지가 제대로 됐는지, 정상적인 망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 검판을 할 수 없으면 인쇄를 돌려야만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게다가 무현상은 현상관리가 필요없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쉬워졌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